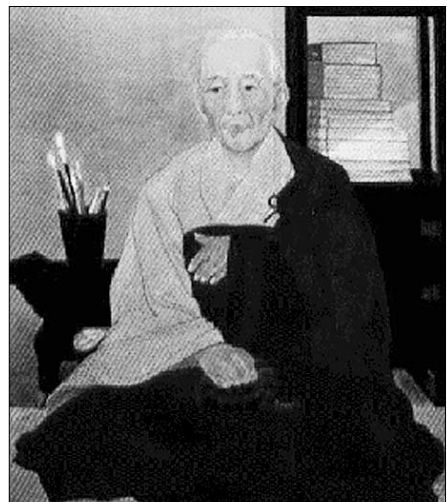


삼국유사 '진가' 를 쉽게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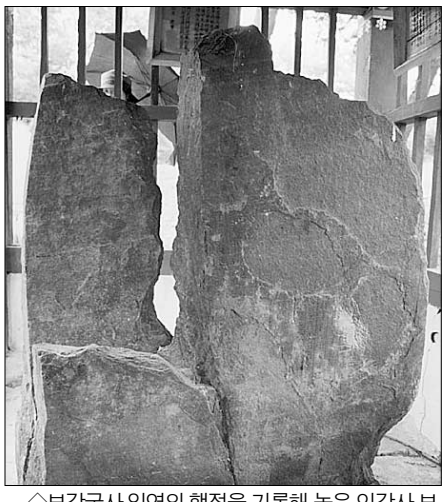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문화와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원천이 되어온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더불어 한반도 고대사의 양대 문헌으로 꼽히는 <삼국유사>의 역주 작업이 8년 만에 완결됐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장을병, 이하 정문연)이 1995년부터 시작한 역주 작업을 통해 <삼국유사> 전 5권 9권 중 지난해 '왕력(王歷)' 편과 '기이(紀異)' 편을 1, 2권으로 펴낸 데 이어 이번엔 '흥법(興法)' 편과 '탑상(塔像)' 편을 묶은 3권과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 등을 담은 4권,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논문들과 앞 권에 대한 색인을 실은 5권을 펴냈다. 이 역주본의 번역은 국문학(황폐강 단국대 명예교수), 고고학(강인구 정문연 명예교수), 불교사(김상현 동국대 교수), 고대사(김두진 국민대 교수), 미술사(장종석 동국대 박물관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번역한 내용을 발표하



◇일연 스님 영정.



◇보각각사 일연의 행정을 기록해 놓은 인각사 보각사탑비(보물 428호).



국문학·불교사 등 각분야 전문가가 번역
최신 연구성도 반영... 번역사적 큰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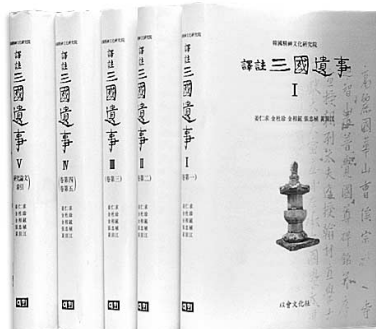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경북 군위 인각사전경.

사진= 고영배 기자

'역주 삼국유사(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이화문화사 / 각 2만8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8년간의 노력끝에 선보인 <역주 삼국유사>.

역교수), 고고학(강인구 정문연 명예교수), 불교사(김상현 동국대 교수), 고대사(김두진 국민대 교수), 미술사(장종석 동국대 박물관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맡아 전문성을 더했다. 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번역한 내용을 발표하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삼국유사 연구 서지학적 접근 필요 초기 판본·고간본 등 열람공개 돼야"

번역 참가 김상현 교수



"<삼국유사>는 그 역사적·사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오탈자가 적지 않아 정확한 교정이 필요했던 문헌입니다. 이번 역주본 발간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를 싹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역주 삼국유사>의 공동연구진으로, 불교사 관련 번역을 담당

한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사신).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고대사회의 신화와 전설·사상·문화·풍속 등 생생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고대 문화의 총합이다"는 김 교수는 국내 삼국유사 연구 성과가 일본에 비해 부진한 이유가 서지학적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헌에 관한 사료학은 서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80~90년대부터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은 문헌의 내용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몇몇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지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김 교수가 이번 <역주 삼국유사> 5권에 <삼국유사>의 찬술자와 찬술시기, 초판 간행 등에 관한 학계의 논란을 정리한 '삼국유사의 서지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실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역사 연구의 기본 텍스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조선 초기 판본들이나 부분적으로 전하는 고간본들을 모두 영인본으로 묶어, 연구자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 <삼국유사>에 관한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삼국유사 들여다보기

▶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은? 현재 남아있는 <삼국유사> 판본은 14세기 말 간행된 조선 초기 판본과 중종 7년(1512년) 경 주부사 이계복(李繼福)에 의해 중간돼 그 해 중국 연호를 딴 '정덕본(正德本)' 등 2종이 있다. 조선 초기 판본은 개인소장본(권3-5, 국보 306호), 부산 범어사 소장본(권4-5, 보물 419-3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권2 등 3권이 있다. '정덕본' 가운데는 서울대 규장각본(국보 306-2호)과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보물 419-4호) 2권이 있다. 규장각본은 '정덕본' 가운데 낙장이 없는 유일한 책이며 인쇄 상태도 가장 좋은 편이다.

▶ <삼국유사>를 둘러싼 논쟁 <삼국유사>는 일연(1206~1289) 스님이 총필 왕 7년(1281)에 편찬한 역사서라는 것이 정설이다.

最古 초기판본·정덕본 14세기 말 간행 "일연 스님 단독 저술 아니다" 일부 주장

<삼국유사>에는 권5에만 '인각사 주지 원경종조 대선사 일연전(麟角寺住持圓鏡淨照)'이라고 저자를 명기하고 있다. 일연 스님의 제자 무국이 부기(附記)한 두 곳은 '무국기(無極記)'라고 밝혀져 있지만, 이 책이 일연의 저술이라고 하는 사실은 상식으로 통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삼국유사>를 일연 스님 단독 저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곧 책에 다른 사람들의 글이 분장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예를 들어, 일연 스님의 문도들이 동원되었거나, 몇 명의 편찬자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김상현 교수는 "일연 스님의 제자 무국이 덧붙인 기록이 두 군데 있고, '역대연표' 등의 집필이 일연 스님 단독 작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찬술자를 여러 명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의 최초 판각 시기에 대해서는 육당 최남선이 일연 생존시 판각설을 주장한 이래 일연의 제자 무국생존시 판각설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성보박물관 하정룡 선임연구원이 <삼국유사> 목판본 13종을 비교 검토한 후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삼국유사>(국보 306-2호).

"<삼국유사>의 초간 시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 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서지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현존하는 <삼국유사> 조선 초기 판본은, 고려 후기까지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던 것을 조선 태조 3년(1394년)을 전후한 무렵 경주부에서 판각한 초간판"이라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산중일지 | 현직 스님 지영사 | 지영사 |
| 2 | 가장 행복한 공부 | 정화 스님 시공사 | 시공사 |
| 3 | 영원한 대자유인 | 김정진 김리 | 김리 |
| 4 |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 빅키 매킨지 김영사 | 김영사 |
| 5 | 더 오래된 과학, 마음 | 해버트 뢰슨 외 여시아문 | 여시아문 |
| 6 |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 해봉 거사 불광 | 불광 |
| 7 | 시공불교사전 | 곽철환 시공사 | 시공사 |
| 8 |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 정봉 스님 경서원 | 경서원 |
| 9 |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 대담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 초기불전연구원 |
| 10 | 파도마 삼바바 | 백이제 민음사 | 민음사 |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아문 전화: (02) 737-0695

왜 지금 명상의 열풍이 부는가?

힘겨운 일상,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 이제 하루 15분의 명상으로 치유한다.

명상계의 대가이자 400만 부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제시하는 과학 명상법

역자: 장현갑(경남대 심리학과 교수/영남대학교에서 유마경 강의)·장주영(명상학과 명상과학 전문번역가)·김대근(한영이카데미 원장/명상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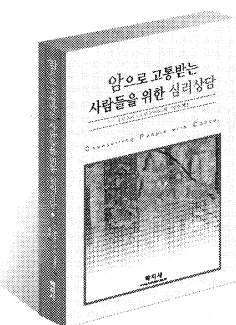


명상이 세계 최고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스토리 '명상의 과학(the Science of Meditation)'이라는 특집기사로 실렸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1,000만 명 이상이 명상을 수행하고 있고, 학교, 병원, 법률사무소, 정부청사, 회사 사무실,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명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양의 신비한 미신' 정도로 여겼던 명상에 대해 '무한 효능이 갖는 과학'이라고 경탄하며 그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명상열풍의 모태가 된 의학박사 벤슨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완반응>의 후속서 <과학 명상법>이 명상열풍의 진실을 밝힌다.

"행복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법으로 하루 15분의 명상을 추천한다. 명상은 지혜를 일으켜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 김해관 사장(엔프러너)
"하버드 의대 벤슨 박사가 티벳 승려들의 수행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명상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명상 지침서." 정구수 회장(삼우 EMC, 세월반도체)
"몸과 마음의 행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과학 명상법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주변에 널리 번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병철 회장(우리금융그룹)

허버트 벤슨·윌리엄 프러터 공저/장현갑·장주영·김대근 공역/국판/양장/212면/8000원

※ 이 책과 관련된 명상 프로그램이 한국경제신문사 한영이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02-3604-8855)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암이 진행되어 가는 단계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추구해 보아야 할 주제들은 무엇인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들을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실제적이고 명확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M. Burton & M. Watson 지/이은희 역/신국판/양장/352면/15,000원